

◆ 15-6평 A형 28~30번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 인센티브 계약에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명시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약속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다. 이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가령,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 + $\alpha \times$ 성과’($0 \leq \alpha \leq 1$)라고 할 때,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내는 α 가 커질수록 근로자는 고정급에 따른 기본 노력 외에도 성과급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 노력과 달리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는 α 가 커질수록 더 많은 몫을 자신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α 를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

그러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α 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 첫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성과는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작업 상황이나 여건, 운 등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이 늘어나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 둘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킨다. 성과 가운데에는 측정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가 악화되어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하는 것이다.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 물론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에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위험 프리미엄: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근로자는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보상.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이해 상충은 근로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보상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문제이다.
- ②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노력을 늘리려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에서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는 것은 노력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 경우에는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보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⑤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서는 명시적인 인센티브의 강도가 높은 것이 효과적이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법원과 같은 제3자가 강제할 수 없는 약속이다.
- ②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한 약속이다.
- ③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약속이다.
- ④ 상대방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초래되는 장기적 손실이 클수록 더 잘 지켜지는 약속이다.
- ⑤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작을수록 더 잘 지켜지는 약속이다.

30. 윗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가.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성과를 늘리기 위한 근로자의 노력을 더욱 늘어나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한다.
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소득을 더욱 불확실하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한다.
다.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인센티브 왜곡을 더욱 커지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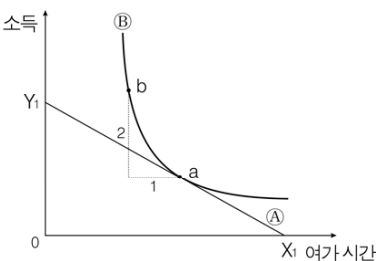
- | | ㉡ | ㉢ | ㉣ |
|---|----|----|----|
| ① | 증가 | 감소 | 감소 |
| ② | 증가 | 증가 | 감소 |
| ③ | 증가 | 감소 | 증가 |
| ④ | 감소 | 증가 | 증가 |
| ⑤ | 감소 | 증가 | 감소 |

◆ 15년 3월 고3 B형 17~20번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루 중 일을 하거나 여가에 ㉠ 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소득도 개인에 따라 거둘 수 있는 범위가 제약되어 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이렇듯 제약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서는 여가와 노동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최적의 조합을 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소득도 증가하므로 여가와 노동 간의 선택 문제는 곧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공급의 결정 모형을 ‘노동-여가 선택 모형’ 또는 ‘소득-여가 선택 모형’이라고 한다.

(나) X축을 여가 시간, Y축을 소득이라고 하면, 여가 시간과 소득이 제약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여가 시간과 소득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인 X_1Y_1 을 오른쪽의 ㉡와 같이 그릴 수 있다. 예산제약선은 제한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선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소득과 여가의 선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산제약선 X_1Y_1 에서 X_1 은 선택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의 최댓값이고, Y_1 은 소득의 최댓값이다.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은 시간당 임금이 된다. 그리고 여가 시간을 나타내는 X축은 노동 시간에 대한 정보도 알려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총시간을 여가 아니면 노동에 사용하므로 총시간에서 여가 시간을 제하면 그 나머지가 노동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다)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서의 선호도는 위의 ㉢와 같이 무차별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무차별곡선은 노동 공급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조합을 서로 연결한 선을 의미한다.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서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을수록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이 높은 조합을 나타낸다. ㉢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인 ‘한계대체율’을 나타낸다. 한계대체율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을 의미한다. 가령 위의 무차별곡선 ㉢상의 b에서 a로 선택을 바꾸려면 여가 시간 한 단위를 늘리기 위해 소득 두 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한계대체율은 2이다.

(라)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위의 ㉡, ㉢와 같이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 주어질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최적 조합은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즉 a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 공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이 어떻게 결정될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동일한 노동 시간에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면, 여가 시간을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여가 시간을 줄여 노동 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노동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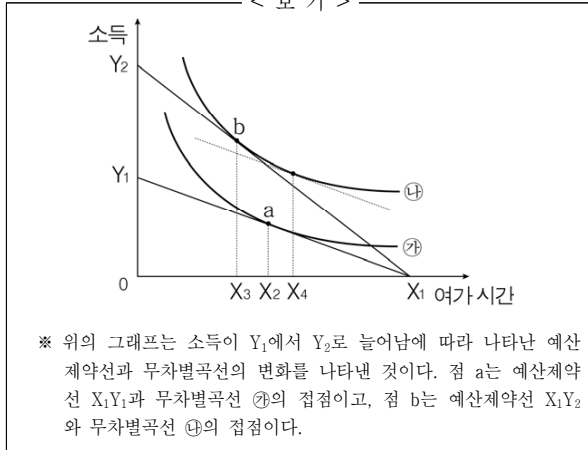
(마)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은 노동 시장의 수요-공급을 이해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을 토대로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노동 공급의 다양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은 사회 보장 제도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 한계효용: 재화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추가되는 효용의 양.

1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예산제약선의 개념과 함께 예산제약선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다): 무차별곡선의 개념과 함께 한계대체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 공급 결정과 시간당 임금 상승 시의 노동 공급 결정 양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이 지닌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18.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점 a에서는 한계대체율과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게 된다.
- ② 점 a보다 점 b에서의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의 총합이 크다.
- ③ 예산 제약선 X_1Y_1 과 X_1Y_2 의 기울기의 차이는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나타낸다.
- ④ X_4 에서 X_2 를 뺀 값은 대체효과를, X_4 에서 X_3 을 뺀 값은 소득 효과를 보여 준다.
- ⑤ 소득의 최댓값이 Y_1 에서 Y_2 로 높아진 것은 소득과 여가 시간의 선택에 관한 제약 조건이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19. (다)를 토대로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A 씨는 여가를 소득보다 선호한다. 반면에 B 씨는 소득을 여가보다 선호한다. 이 두 사람의 ‘소득-여가 선택 모형’ 그래프를 그리면, 무차별곡선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A 씨와 B 씨의 무차별곡선상에서 동일하게 소득 3단위와 여가 1단위를 선택한 조합을 나타내는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B 씨보다 A 씨의 무차별곡선에서 급한 것이다. 이것은

- ① 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커서 한계대체율이 작기 때문이다.
- ② 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커서 한계대체율이 크기 때문이다.
- ③ 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작아서 한계대체율이 작기 때문이다.
- ④ 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작아서 한계대체율이 크기 때문이다.
- ⑤ A 씨와 B 씨의 소득의 한계효용과 여가의 한계효용은 같지만 한계대체율이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20. ㉔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 쓰겠니?
- ② 강한 공을 던지려면 허리를 잘 써야 한다.
- ③ 회사에서는 경력자를 써서 그 일을 하기로 했다.
- ④ 자식에게 쓴 돈은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 ⑤ 아랫방을 쓰는 형이 불편하다며 서로 방을 바꾸자고 했다.

◆ 14년 11월 고2 B형 24~27번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높은 연봉에 관한 기사를 보고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같은 종목의 다른 선수들에 비해 이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수입의 차이는 다른 직종의 구성원 사이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적 지대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지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공급곡선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은 한 노동자의 노동공급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노동공급곡선이란 임금에 따라 노동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노동량을 표시한 곡선을 의미한다. 이 곡선에서 균형임금*이 W_0 라고 할 때, L_0 만큼의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고 노동자의 총수입은 $L_0 \times W_0$ 로, A와 B를 합한 면적이 된다. 이때 A는

<그림> 노동자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수입으로 이를 전용수입(轉用收入)이라고 한다. 그리고 B는 총수입 중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노동자가 추가적인 수입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며, 이를 경제적 지대(經濟的地代)라고 한다.

노동자가 노동 공급으로 얻는 수입 중에서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노동 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임금 변동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임금 변동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가 크고, 비탄력적일수록 임금 변동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가 작다. 일반적으로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왜냐하면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자는 노동공급의 양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희소해지고 경제적 지대가 커진다.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높은 소득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으로 노동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어서 그 희소성으로 인해 높은 소득의 대부분을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게 된다.

이에 반해 노동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공급이 많이 증가하므로 희소성이 없어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다. 노동공급곡선의 기울기와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서로 반비례하는데 극단적으로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는 '완전 탄력적인 경우'로 노동공급에 희소성이 전혀 없어 이때 경제적 지대는 0이 되고 소득은 전부 전용수입이 된다. 반대로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인 경우는 노동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로 노동공급이 고정되어 희소성이 가장 커지므로 소득은 전부 경제적 지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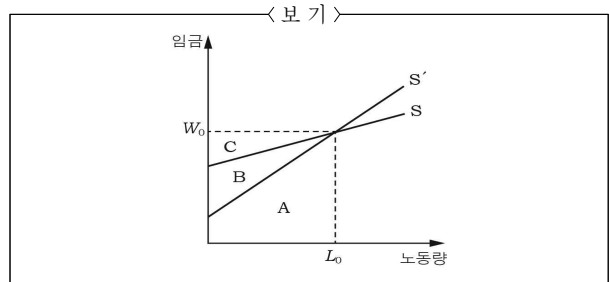
한편, 특정 집단이나 단체가 경제적 지대를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노동공급을 제한하여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활동을 '지대추구행위'라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진입장벽을 높여 타 집단과의 자유경쟁을 억압하고 시장 전체의 비효율성을 ㉠ 부른다. 지대추구행위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진입장벽의 철폐, 각종 기득권의 해체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지대의 철폐라고 볼 수 있다.

* 균형임금: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의 임금.

24.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전용수입의 개념은 무엇일까?
- ② 노동공급이 탄력적인 직종에는 무엇이 있을까?
- ③ 지대추구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 ④ 경제적 지대가 없다면 노동공급곡선은 어떤 모양일까?
- ⑤ 노동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일 때 경제적 지대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어떻게 될까?

2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두 공급곡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S에 비해 S'는 임금이 오르면 노동공급의 증가량이 더 커진다.
- ② S에 비해 S'는 노동공급에 희소성이 있어 경제적 지대가 더 크다.
- ③ S'에 비해 S는 임금변동에 따른 노동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 ④ 균형임금이 W_0 일 때 S와 S'의 총수입은 각각 $A+B+C$ 로 같다.
- ⑤ 균형임금이 W_0 일 때 S의 전용수입은 $A+B$ 이고, S'의 전용수입은 A에 해당된다.

26. 밑글을 읽고 <보기>의 사례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A는 광고를 계약하면서 출연료가 300만 원이면 계약을 하고, 그 이하면 계약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광고회사는 A와 광고계약을 하면서 5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 B는 유명한 동료들과 회사를 만들고 서로 출연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희소성을 높여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한다.

- ① A는 전용수입이 추가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광고계약을 하게 되겠군.
- ② A의 광고계약 수입 중 200만 원은 전용수입이고, 300만 원은 경제적 지대에 해당하는군.
- ③ B가 동료들과 서로 출연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지대의 철폐라고 볼 수 있군.
- ④ B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공급곡선을 비탄력적으로 만들고자 하는군.
- ⑤ B가 희소성을 높이는 것은 진입장벽을 높이는 활동으로 전용수입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군.

27. ㉠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라.
- ② 저 멀리 푸른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
- ③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르기 마련이다.
- ④ 우리는 체육대회에서 신나게 응원가를 불렀다.
- ⑤ 그 가게에서는 값을 비싸게 불러 거래하지 않는다.

- 출전: 이준구 저. 《미시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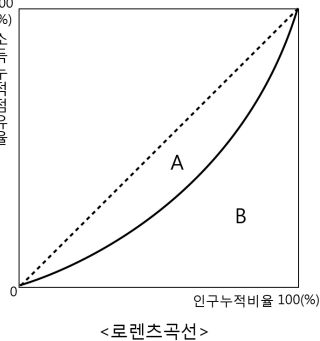
- 정답: 24.② 25.① 26.④ 27.③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이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 사회에서 소득의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0분위 분배율', '로렌즈 곡선', '지니계수' 등을 사용하고 있다.

① 10분위 분배율이란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들까지 일렬로 배열하여 10개의 계층으로 나눈 후, 하위 소득 계층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소득 계층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 때 나온 값이 작을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한다. 10분위 분배율은 측정이 간단하면서도 소득 분배 정책의 주 대상이 되는 하위 40% 소득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직접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상위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10분위 분배율은 소득 분배 측정 방법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된다.

계층별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는 ㉔로렌즈곡선을 들 수 있다. 로렌즈곡선은 정사각형 상자의 가로축에는 인구누적비율을, 세로축에는 소득누적 점유율을 표시한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로렌즈곡선은 그림의 점선과 같이 대각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 로렌즈곡선은 대각선보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로렌즈곡선이 평평하여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 분배를, 많이 구부러져 직각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나타낸다.



로렌즈곡선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그림으로 나타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로렌즈곡선이 미국의 그것보다 더 대각선에 가깝게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미국보다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를 비교할 때는 나라의 수만큼 곡선을 그려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 또한 한 좌표 안에 여러 나라의 로렌즈곡선을 그리다 보면 서로 엇갈리면서 교차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때는 나라별 소득 분배 상태를 비교하기가 어렵게 된다.

로렌즈곡선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㉔지니계수이다. 위의 그림처럼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은 로렌즈곡선을 기준으로 A와 B로 나누어진다. 지니계수는 A의 넓이를 A와 B를 합한 넓이로 나눈 값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즈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영(0)에 가까운 값을,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갖지만, 10분위 분배율과는 반대로 그 값이 클수록 더욱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듯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 상태를 숫자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소득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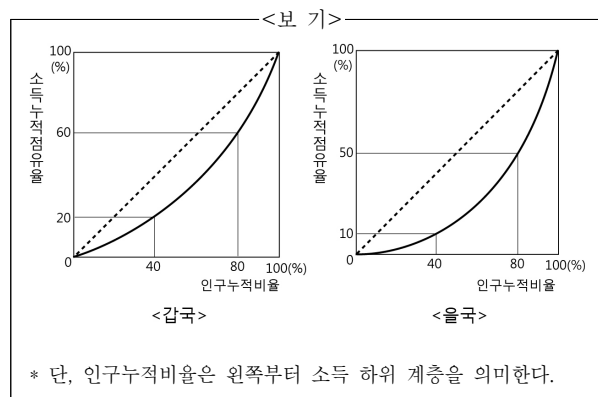
2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이론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전개하고 있다.
- ④ 대립되는 이론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26.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㉑은 ㉒과 달리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그림으로 단순히 나타낼 수 있다.
- ② ㉑은 ㉒과 달리 특정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알 수 있다.
- ③ ㉑이 ㉒보다 여러 나라의 소득 분배 상태를 수치로 비교하기에 유리하다.
- ④ ㉑이 ㉒보다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 ⑤ ㉑의 값이 커질수록 ㉒과 ㉔의 값도 커진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단, 인구누적비율은 왼쪽부터 소득 하위 계층을 의미한다.

- ① 갑국의 소득 분배가 을국의 소득 분배보다 더 평등하다.
- ② 갑국의 지니계수가 을국의 지니계수보다 1에 더 가깝다.
- ③ 갑국보다 을국의 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더 낮다.
- ④ 갑국의 10분위 분배율이 을국의 10분위 분배율보다 더 크다.
- ⑤ 갑국의 경우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 06년 9월 고2 47~5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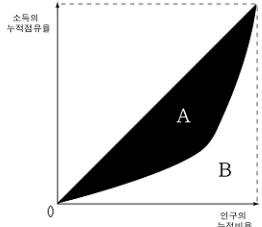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장 경제에서 소득의 분배는 각 생산 요소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나갈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도 모두 다르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소득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격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사회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는 일반적으로 '10분위 분배율'과 '로렌츠 곡선', 그리고 '지니 계수' 등의 척도로 측정된다.

10분위 분배율이란 하위 소득 계층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소득 계층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누어준 비율을 말한

다. 이 값은 한 사회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 10분위 분배율의 값이 낮을수록 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계층별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는 로렌츠 곡선을 들 수 있다. 로렌츠 곡선은 정사각형의 상자 안에 가로축에는 저소득 계층부터 고소득 계층까지를 차례대로 누적한 인구 비율을, 세로축에는 해당 계층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보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로렌츠 곡선이 평평하여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 분배를, 그리고 많이 구부러져 직각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로렌츠 곡선이 미국의 그것보다 대각선에 가깝게 나타난다면 한국의 소득 분배가 미국보다 더욱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두 나라의 로렌츠 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 소득 분배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사용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지표가 지니 계수이다. 위의 그림에서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은 로렌츠 곡선을 기준으로 A와 B의 두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지니 계수는 A의 넓이를 A와 B를 합한 넓이로 나눈 비율이다. 그러므로 지니 계수는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운 값을,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즉 지니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더욱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를 뜻하게 된다.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조세 제도와 정부 지출을 통한 두 가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고 있다. 조세 제도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제와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제 등이 있다. 한편, 정부 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은 사회 복지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사회 복지비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계층의 생계 보조나 경제적 자활을 위해 지출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조세 제도 혹은 정부 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은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 정책은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려, 근본 취지와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정책의 부작용은 사람들이 사회 복지 제도에 의존하는 성향이 커지는 복지병(福祉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소득 재분배 정책이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높은 근로 의욕을 유지하는 동시에, 교육이나 훈련 혹은 직장 경험 등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47.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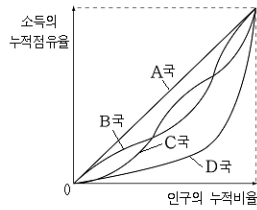
- ① 소득 재분배 정책의 부작용
- ②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
- ③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는 근본 취지
- ④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⑤ 소득 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 양상

48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은/는 (㉡)을/를 토대로 산출된다.

- | ㉠ | ㉡ |
|------------|----------|
| ① 10분위 분배율 | 로렌츠 곡선 |
| ② 10분위 분배율 | 지니 계수 |
| ③ 로렌츠 곡선 | 지니 계수 |
| ④ 지니 계수 | 로렌츠 곡선 |
| ⑤ 지니 계수 | 10분위 분배율 |

49 위 글을 바탕으로 아래 도표를 해석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소득을 얻고 있겠군.
- ② B국은 C국보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매우 심하겠군.
- ③ C국의 지니 계수는 D국의 지니 계수보다 작겠군.
- ④ D국의 10분위 분배율은 B국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군.
- ⑤ D국은 네 나라 중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로군.

50 위 글을 바탕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직자가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 ② 구직자 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장이 취업할 때까지 가정의 생계를 보장한다.
- ③ 금융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율을 달리하여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다.
- ④ 정부 산하 기관에 취업 알선 사이트를 만들어 구직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 ⑤ 예비 직장인을 실습 사원으로 채용하여 업무 경험을 쌓게 하는 기업에 임금 보조금을 지급한다.